

금타 화재 여파...6월 광주 타이어 수출 30% 급감

가전제품 전년동월비 42.9% 줄어...전남 석유제품·화공품 급락
수출 4.7%·수입 1.7% 감소...무역흑자 전월보다 31%나 줄어

광주·전남의 6월 수출입 실적이 나란히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금호타이어 화재, 여수산단 석유화학 산업 위기 등으로 관련 제품의 수출량이 전년 동월 대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본부세관이 15일 발표한 ‘2025년 6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6월 수출은 47억 58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7%

줄었고, 수입은 37억 6100만달러로 1.7%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9억 97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월보다 31.1% 급감했다.

광주지역 전체 수출액은 14억 33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했지만, 타이어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29.4%, 가전제품은 -42.9%나 줄어드는 등 지역 주력 품목의 실적 부진이 두드러졌

다. 특히 타이어의 경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에 따른 생산 차질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광주의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수송 장비(45.9%)로 전년 대비 4.3% 증가한 6억 58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어 반도체(13.6%), 기계류(5.3%)가 소폭 성장했지만 전체 수출 증가 폭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광주지역 6월 수입은 반도체(58.5%), 가전제품(27.6%), 기계류(17.2%) 등이 크게 늘어 전체 수입 증가를 견인했다.

국가별로 동남아(12.4%), 중남미(9.6%) 수출이 증가했고 EU(-28.9%), 미국(-0.8%), 중국(-

1.3%)은 감소했다.

전남지역은 33억 2500만달러를 수출해 전년 동월보다 -7.4% 감소했다. 석유제품 수출이 -3.7%, 화공품이 -26.2% 줄면서 전체 실적을 하락시켰다.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한 수출 구조 특성상 국제 유가와 세계적 수요 위축 등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남 수출 품목 중 수송장비(38.8%), 기계류(150.2%)는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며 대조를 이뤘다.

반면 비중이 큰 석유제품, 화공품, 철강 제품 모두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로 이

어졌다. 수입 역시 원유(-15.6%), 석유제품(-27.2%), 석탄(-11.2%) 등 에너지 자원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9.0% 줄었다.

국가별로 전남의 주요 수출 시장 중 EU(116.8%), 미국(28.1%)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17.0%), 일본(-21.3%), 동남아(-14.8%)는 감소했다.

광주·전남은 각각 제조업과 에너지·화학 산업 기반 수출 구조인데, 6월 실적에서 두 지역 모두 세계 경기 둔화와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김해나 기자 khn@

캐스퍼 연식 변경...GGM, 노사 갈등 생산 차질 여전

2026 캐스퍼·캐스퍼 일렉트릭 판매
올 생산 목표 5만8000대 달성 위해
유럽·일서 인기...불협화음 해소해야

유일하게 광주에서만 생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경형 SUV 캐스퍼가 연식 변경으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을 찾아가고 있다.

15일 현대차에 따르면 캐스퍼의 연식 변경 모델 ‘2026 캐스퍼’와 ‘2026 캐스퍼 일렉트릭’이 이날 출시돼 판매에 들어갔다.

이번 연식 변경은 고객 선호도가 높은 인포테인먼트와 안전·편의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화해 상품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2026 캐스퍼 전 트림에는 LED 실내등을 적용하고 1열에 각도 조절이 가능한 4 웨이 헤드레스트를 넣어 상품성을 높였다.

또 두번째로 높은 트림인 디 에센셜부터 10.25인치 내비게이션, 자동 눈부심 방지 토틀러, 1열 LED 선바이저 램프 등을 기본 적용했다.

2026 캐스퍼 일렉트릭의 경우 전 트림에 자동 눈부심 방지 토틀러와 1열 LED 선바이저 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간다.

인기 트림인 인스퍼레이션부터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안전 하차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스탑앤고 기능 포함)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사양이 대거 탑재됐다.

캐스퍼가 최첨단 사양이 담긴 연식 변경을 통해 고객을 찾아갈 예정이지만, GGM 노사 간 갈등이



2026 캐스퍼 외장.

〈현대차 제공〉

해소되지 않으면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된다. GGM은 올해 캐스퍼 생산 대수 5만 82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노조의 파업과 현재 GGM의 ‘무교대’ 시스템으로는 고객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GGM은 지난 2019년 광주시 노사민정협정서에 따라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 전까지 상생 협의회를 통해 근로 조건을 조율하고 매년 불가 상승률만큼 임금을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일부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해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주장하며 파업을 이어가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캐스퍼가 국내뿐 아니라 ‘현대차 불모지’였던 일본 등에서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고객 대기를 최

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 1월 캐스퍼를 구매한 뒤 ‘납기 7개월’ 통보를 받았던 한모(여·37)씨는 “기존 납기 일자보다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진 상황에서 광주 일자리 파업 등 뉴스가 들려올 때마다 화가 난다”면서 “돈을 내고 차를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웃픈’ 현실이 황당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6 캐스퍼의 판매 가격은 기본 모델 스마트 1493만원, 디 에센셜 1771만원, 인스퍼레이션 2017만원이며 밴 모델 스마트 1460만원, 스마트 초이스 1560만원이다. 2026 캐스퍼 일렉트릭은 친환경 차 세제 혜택 적용 기준으로 프리미엄 2787만원, 인스퍼레이션 3137만원, 크로스 3337만원이다. 친환경 차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은행권 “3분기 가계대출 문턱 크게 높아질 것”

“3단계 스트레스DSR 등 영향”

올해 3분기 은행 가계대출 문턱이 2분기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 지수(-17)는 전 분기(-13)보다 4포인트(p) 떨어졌다. 대출태도가 더 간간해질 것으로 예상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한은은 이 조사에서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크게 완화·증가·다소 완화·증가·변화 없음·다소 강화·감소·크게 강화·감소)를 가장 평균해 100과 -100 사이 지수로 산출했다. 지수가 양(+)이면 “완화(대출태도)” 또는 “증가(신용위험·대출수요)”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 또는 “감소”보다 많은 상태고, 음(-)

이면 반대다.

대출 주체별로 나눠보면, 특히 가계 주택대출(-31)과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22)에서 2분기(-11~-11)와 비교해 뚜렷하게 태도 강화 전망이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14에서 -6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강화 우위 상태다. 반대로 대기업(6)의 경우 완화 우위로 돌아섰다.

한은 관계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 7월부터 도입되는 데다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추가 시행되면서 가계 주택 관련 대출, 신용대출 모두 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3분기 대출수요 종합 지수(5)는 2분기(15)보다 10p 낮아졌다. 수요 증가 전망이 여전히 감소보다 많지만, 차이가 줄었다는 뜻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금호타이어 관계자가 지난 4월 타이어 무상 점검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금타, ‘화재 사과 마음’ 담아 타이어 무상 점검

타이어프로 26개소 등서

금호타이어는 “오는 22일부터 광주공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사과의 마음을 담아 타이어 무상 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무상 점검은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오는 22~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또 광주지역 타이어프로 대리점에서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상 점검을 한다. 타이어 종류와 상관없이 타이어 마모 상태, 공기압·균형, 차량 드림 온도, 좌우 편차 등을 점검받을 수 있다.

타이어 점검을 원하는 시민은 기간 안에 타이어프로 대리점(광산점·광주공화점·도산점·소촌점·수원점·첨단점·첨단지구점·하남점·광주터미널점·농성점·상무점·풍암점·소태IC점·매곡점·본촌공단점·북광주점·북동점·양산점·오치점·용봉IC점·전

남대점·중흥점·남구원산점·백운점·진월점·남광주점)을 방문하면 된다.

금호타이어는 여름 휴가철을 맞은 시민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오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가평 휴게소(춘천 방향), 여주 휴게소(강릉 방향), 정안알밤 휴게소(순천 방향), 함안 휴게소(순천 방향)에 무상점검 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스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금호타이어는 또 타이어 관리 요령과 운행 시 주의사항에 대한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광주공장 화재로 불편을 겪은 지역민을 위해 무상 점검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본격적인 휴가철에는 차량 이동이 많고 번덕스러운 날씨, 뜨거운 지열 등으로 타이어 공기압, 마모도 점검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은행 ‘우리동네 골목대장을 찾아라!’ 이벤트

광주 로컬 명소 홍보 혜택 제공

광주은행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광주 로컬 명소를 알리고,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는 ‘우리동네 골목대장을 찾아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이번 이벤트는 젊은 세대의 시선으로 발굴한 광주의 숨은 명소를 주제로 한 밸런스 게임 형식으로 진행된다. 매주 월요일 광주Wa뱅크 앱에 공개되는 두 가지 콘텐츠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하고, 선택한 콘텐츠가 그 주치의 우승 콘텐츠로 선정되면 참여자에게는 행운카드 1장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운카드는 ‘교촌 반반 오리지날 + 콜라 1.25L’, ‘GS25 1만원권 모바일 교환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까르보 불닭볶음면’ 경품 응모에 참여할 수 있다.

밸런스 게임의 주제로 선정된 명소들은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직접 발굴했다. 분야별로 피크닉 명소, 독서하기 좋은 공간, 숨은 맛집 등의 로컬 콘텐츠로 구성됐다. 광주은행은 이번 이벤트가 단순 투표에 그치지 않고 지역 명소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방문·소비 등으로 이어지는 등 선순환 구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종은 광주은행 디지털플랫폼부장은 “우리 지역의 명소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관광과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상생 프로젝트성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광주Wa뱅크 앱을 통해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GICON, ‘IR Challenge’

12개 기업 투자유치 기회

멘토링 참여 4개 기업 선정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난 10일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2025 스타트업 IR Challenge’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콘텐츠 분야의 스타트업 및 ICT·콘텐츠 융합 분야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GICON 지원 기업과 지역창업특화지원 보육·육성 중인 기업이 참가했으며, 우리 지역의 벤처캐피탈(VC)·액셀러레이터(AC)·개인투자자 등이 참여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투자 유치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 현장에서 1대1 매칭 비즈니스 상담회도 진행했다. 지역 스타트업들은 AC와 VC 등에게 실시간으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계획에 대한 코칭을



받았다.

IR피칭 경진대회에는 앞서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12개 기업이 참여했고, (주)스마트라이트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주)스페이스에 아이아, 장려상은 (주)큐브베리외와 (주)윙스가 받았다. GICON은 수상 기업 4개 사에게 총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GICON은 이번 행사에 참가한 기업 중 창업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4개 기업을 선정하고, 전문가와의 1대1 멘토링과 오는 12월 31일까지 IR 기회 및 투자 연계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GICON이 운영 중인 펀드와의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콘텐츠 제작 분야 스타트업 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내주부터 연 60% 고금리 불법대부계약 무효

다음 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고,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필요한 하위 법령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

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또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15.28	(+13.25)
▲ 코스닥	812.88	(+13.51)
↓ 금리(국고채 3년)	2.463	(-0.011)
↓ 환율(US D) 〈오후 4시 47분 기준〉	1378.40	(-2.80)